202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③	2	②	3	⑤	4	④	5	③
6	⑤	7	①	8	②	9	①	10	①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①
16	③	17	①	18	②	19	④	20	⑤
21	④	22	①	23	④	24	②	25	④
26	⑤	27	②	28	⑤	29	②	30	④
31	③	32	②	33	⑤	34	④		

해설

**** 독서 이론 ****

□ 출전 : 모티머 J. 애들러 외 1명, 『생각을 넓혀 주는 독서법』

1.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2문단에 따르면, '주장과 근거 찾기' 방법이 사용되는 단계는 제3수준이며, '독서 수준은 이전 수준에 도달해야 다음 수준의 읽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제2수준인 점검 독서를 하기 위해 제3수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초급 독서는 '책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기초' 단계이며, 독자의 독서 수준은 '위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초급 독서 수준에 도달해야 점검 독서를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점검 독서는 '책을 훑어보거나', '필요한 부분을 읽는 단계'라고 하였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점검 독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분석적 독서는 '시간제한 없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통합적 독서는 '여러 책'을 연관 지어 읽는 방법이라고 하였고, 분석적 독서는 '한 권의 책'을 읽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2. [출제 의도] 중심 내용 파악

4문단에 따르면,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독자가 중립적 용어로 바꿀 경우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중립적 용어를 설정할 때 단어의 의미가 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절하다.

① 2문단에 따르면, 통합적 독서는 분석적 독서와 달리, '여러 책을 읽고 중심 주제를 연관 지어 읽는 단계'라고 하였으므로, 앞선 수준과의 차이점이 제시되었다. ③ 1문단에 따르면, 통합적 독서는 능동적 독서 방식에 해당한다. 4문단에 따르면, 통합적 독서는 '저자들의 견해를 이해하고 융합적 사고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능동적 독서의 장점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통합적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저자들의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쟁점들을 규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자들 간의 의견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 따르면, 독자가 '쟁점별로 저자들의 해석이 다른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통합적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저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비교하는 방법은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3.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3문단에 따르면, 통합적 독서는 '쟁점별로 저자들의 해석이 다른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였다. ⓒ는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저자들의 해석의 차이점을 분석한 것으로, 독자가 해석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관점과 유사한 저자의 해석을 선정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 따르면, 통합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도서 목록'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는 독자가 통합적 독서를 하기 전에 주제와 관련된 도서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성공의 기준'이라는 탐구 주제로 통합적 독서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② 3문단에 따르면, 독자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저자들이 관점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 핵심 단어의 의미를 분석'한다고 하였다. ⓑ는 탐구 주제의 핵심 단어인 '성공'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것을 분석한 것으로,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가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됨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저자들이 사용한 핵심 단어의 의미를 '공통된 요소를 담아 중립적 용어로 재설정한다'라고 하였다. ⓒ는 저자들이 다르게 사용한 '성공'의 의미를 분석해 재설정한 것으로, 저자들이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중립적 용어로 다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저자들의 관점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쟁점들을 규정한다'라고 하였다. ⓓ는 탐색한 저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주제와 관련된 쟁점을 정한 것으로, 저자들의 관점이 부딪치는 부분을 질문 형식의 쟁점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 주제 통합 ****

□ 출전 : (가) 안소니 기든스, 『사회구성론』
(나) 울리히 벡, 『위험사회』

4. [출제 의도]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파악

(가)는 구조화 이론에서 구조의 특성을 '언어 규칙'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나)는 위험사회에서 계층을 가르는 기준과 과학 및 전문가의 권위가 변화된 상황을 인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성찰적 실천, 추상적 시스템 등과 같은 구조화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으나, (나)는 위험사회의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구조를 인간 행위에 선행하는 외적 제약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인간 행위의 반복이 구조를 형성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들은 구조화 이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이지, 구조화 이론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 (나)는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의 의미, 위험사회의 정의, 과학과 전문가의 권위 재편, '하위정치' 중심의 다층적 체계 전환 등 주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 ⑤ (가)는 구조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의 한계를 구조화 이론이 출현하게 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위험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정치' 중심의 다층적 체계로 전환된다'고 제시했을 뿐 위험사회의 다층적 의사 소통 체계가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 의도] 중심 내용 파악

(가)의 2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인간들이 단순히 기존 구조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존 구조를 활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보았으며, 이러한 개인의 행위를 ㉠(성찰적 실천)이라 하였다. 이는 개인이 구조를 주체적으로 변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의 5문단에 따르면, 벡은 '기존의 사회 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성찰적 근대성)이라 하였다.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① ㉠은 구조를 활용하고 변용하지만 재구성된 구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행위는 아니다. ② ㉡은 위험사회 속에서 기존 사회의 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행위이므로, 기존 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은 구조를 성찰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이지만 기존 구조와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행위는 아니다. ㉡은 기존 구조를 점검하고 재구성하는 행위이지만 기존 구조와 새로운 구조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행위는 아니다. ⑤ ㉠은 구성원을 제약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구성하는 행위이므로 구조의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은 구성원을 위협하는 구조의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6.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A]에 따르면, '추상적 시스템'은 '상징적 표상과 전문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징적 표상'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물'이고, '전문가 체계'는 '고도로 분업화된 전문 지식과 그 운용 체계'이므로 상징적 표상을 활용하여 전문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 따르면, 추상적 시스템은 타인과 직접적 접촉 없이도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적 표상과 전문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상징적 표상이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물'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A]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 맺기가 화폐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시공간으로 확장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A]에 따르면, '전문가 체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위'는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A]에 따르면, '낯선 환경과 타인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불안과 불확실성은 전문가 체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위험사회에서는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을 넘어 위험을 통제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벡은 '산업사회가 초래한 위험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산업화의 부산물로, 자연재해와 달리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과학으로도 완벽한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벡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했던 전문가의 권위 역시 해체'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이 위험을 분배하는 권한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된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벡은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구조는 전문가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정치' 중심의 다층적 체계로 전환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벡은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와 정치 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전문가 체계는 고도로 분업화된 전문 지식과 그 운용 체계를 의미한다. <보기>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환경 정책이나 기업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실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민들의 모습을 기든스가 전문가 체계의 운용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4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인간이 성찰적 실천을 통해 사회체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며, 사회를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환경 정책이나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기든스는 시민들을 기존 구조에 순응하지 않는 실천적 역량을 지닌 주체적인 행위자로 볼 것이다.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기든스는 '사회체계가 재생산이 되려면 개인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하며, 4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성찰적 실천을 통해 사회체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며, 사회를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라고 하였다. <보기>의 기업들이 '친환경적 행동 양식'으로 경영 방법을 변화시킨 것은 시민들이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일상에서 실천하였기 때문이므로, 기든스는 이런 상황을 사회체계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것이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벡은 '경제와 정치 분야의 최우선 과제'를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보기>에서 시민들이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반복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에서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벡은 이러한 시민들의 모습을 '사회 운영의 중심축이 '부의 생산'에서 '위험의 관리'로 이동한 상태, 즉 안전과 생존이 화두가 된 상태'라고 볼 것이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벡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했던 전문가의 권위 역시 해체되며,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구조는 전문가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하위정치' 중심의 다층적 체계로 전환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시민들이 정부나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만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친환경적 행동 양식'을 수행하는 모습을 벡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하위정치'의 실천이라고 볼 것이다.

9. [출제 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관망하다'는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보다.'의 의미이다. ⓐ의 '바라보다'는 '어떤 현상이나 사태를 자신의 시각으로 관찰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생성하다'는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③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④ '상실하다'는 '어떤 것을 아주 잃거나 사라지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⑤ '향유하다'는 '누리어 가지다.'의 의미이므로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 기술 ****

□ 출전 : 신부용·유경수, 『도로 위의 과학』

10.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4문단에 따르면, 설계 속도는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이며,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이 설계 속도의 약 85% 정도로 주행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속도는 실제 도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평균 속도가 아니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직선 도로에서는 횡단 경사를 2% 이내로 제한하여 운전 중 차량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위험을 막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다공성 포장이나 특수 포장재를 사용하면 마찰력을 크게 할 수 있지만 도로가 결빙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곡선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크기는 차량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 반경에는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력은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직선 도로에서는 횡단면 기준으로 도로 양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중앙이 높은 좌우 대칭의 내리막 경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2문단에 따르면,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상태에 따른 마찰력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는 도로 면의 상태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편경사)는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상쇄하여 차량이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을 방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2문단에 따르면, ⓐ는 접촉면의 상태에 따른 마찰력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므로, 차량의 속도와는 무관하다. 4문단에 따르면, ⓑ는 원심력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한 것일 뿐, 곡선 도로의 반경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는 접촉면의 상태에 따른 마찰력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므로, 도로 설계 시 마찰력의 크기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4문단에 따르면 ⓑ는 곡선 도로와 완화 곡선 도로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곡선 도로에서 직선 도로로 변경된 후 적용되는 것은 횡단 경사이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가 차량 주행의 안전성을 돕는 것은 마찰력을 줄이기 때문이 아니라, 차량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일부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⑤ 2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와 ⓑ는 모두 크기가 작아질수록 곡선 도로에서 차량이 바깥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높아진다.

12. [출제 의도] 중심 내용 파악

[A]에 따르면,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는 도로의 설계 속도에 2.5초를 곱해 제동 반응 거리를 산정함을 알 수 있다. 정지 거리는 제동 반응 거리와 제동 거리의 합으로 이루어지므로, 도로의 설계 속도가 높아진다면, 설계상의 정지 거리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② 운전자의 주행 속도가 달라지면 그에 비례하여 실제 제동 반응 거리는 달라진다. ③ 운전자의 주행 속도가 줄어들면 제동 반응 거리와 제동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정지 거리도 짧아진다. ④ 운전자의 제동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실제 정지 거리에서 제동 반응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제동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다. ⑤ 도로 설계상의 제동 반응 시간은 2.5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거가 더 많이 확보되더라도 설계상의 제동 반응 시간을 2.5초보다 더 짧게 바꿀 수 없다.

13.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보기>에서 ㉠은 직선 도로, ㉡은 완화 곡선 도로, ㉢은 곡선 도로이다. 3문단에 따르면 도로 설계에서는 도로 상황을 결빙 시 마찰 계수인 0.2 ~ 0.3의 절반 수준인 0.1 ~ 0.16 범위로 가정하여 마찰 계수를 적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찰 계수를 <보기>의 설계 기준 마찰 계수인 0.1보다 크게 하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① 1문단에 따르면, ㉠ 구간에서 편도 2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차로를 더 확장하게 되면 중앙선 기준 도로 양 끝의 높이는 기존보다 1m당 2㎝만큼 더 낮아진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완화 곡선 도로의 길이는 설계 속도에 비례하고, 곡선 도로의 반경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속도를 낮추고 곡선 도로의 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 구간의 길이는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③ 4문단에 따르면, 곡선 도로에서 편경사는 최대 8%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곡선 도로의 반경이 기존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 구간에 적용되는 최대 편경사는 더 높일 수 없다. ④ ㉡ 구간은 완화 곡선 도로이므로 주행의 안전성을 돕기 위해 도로의 경사가 서서히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회 ****

□ 출전 : 안해성, 『성공적인 개인 투자를 위한 ETF 안내서』

14.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3문단에 따르면, 유동성 공급자는 'ETF의 설정과 환매 과정에 참여'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괴리율이 양수 혹은 음수일 때 각각 설정과 환매를 통해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을 다시 본질 가치에 근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① 1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펀드는 '실시간 매매가 어려워 환금성이 낮'지만, ETF는 '투자자가 이를 개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으로, 높은 환금성을 지닌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상관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기초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임'을 뜻한다. ④ 1문단에 따르면, 'ETF 증권 1주를 매수하는 것은 그 지수에 포함된 여러 기업의 주식을 기초 지수의 구성 비율만큼 나누어 모두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ETF 증권 1주를 매수하는 것이 기초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주식 1주를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은 '투자자의 매수·매도 수요에 따라 형성'된다.

15.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투자 원금을 a원이라고 할 때 기초 지수가 100에서 80으로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ETF에서는 원금이 40% 감소하여 0.6a원이 된다. 다음 달에 기초 지수가 30% 상승한 104가 되어 지수 상승폭의 2배를 평가액에 반영하더라도 투자 원금인 a보다 작은 0.96a가 된다. 따라서 [A] 기간에 ㉢을 선택한 투자자는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② 4문단에 따르면, '패시브형 ETF는 기초 지수의 수익률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0.9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므로, [B] 기간에 ㉠을 선택한 투자자는 기초 지수의 상승률과 유사하게 수익을 실현했을 것이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레버리지형 ETF는 기초 지수의 수익률에 '2배나 3배 등 일정 배율을 곱한 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계약을 활용하여 지수 변동폭을 확대해 추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B] 기간에 기초 지수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을 선택했다면 본인이 목표한 배율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커버드콜형 ETF는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가 상승 전에 미리 판매했기 때문에 증권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 실현은 제한되지만,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C] 기간의 시작인 7월 24일과 끝인 12월 24일의 기초 지수가 110으로 동일하므로, ㉠을 선택한 투자자는 ㉣을 선택한 투자자와 달리 주기적으로 현금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액티브형 ETF는 상관 계수 0.7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종목을 운용하여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C] 기간에 기초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기초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초과 수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보다는 ㉡을 선택했을 것이다.

16.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 적용

3문단에 따르면, 괴리율이 음수, 즉 시장 가격이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에서 ETF 증권을 매수하여 자산 운용사에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 자산 바스켓을 다시 지급받'아 '확보한 기초 자산 바스켓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다. 따라서 t_3에서 t_4로 가는 과정은 괴리율이 음수이므로, 유동성 공급자의 차익 거래로 인해 ETF A의 총발행 증권 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① t_1에서 t_2로 가는 과정에서는 괴리율이 음수이므로,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에서 ETF 증권을 매수하여 자산 운용사에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 자산 바스켓을 다시 지급'받는다. ② t_2는 괴리율이 0이고, t_3은 괴리율이 음수이다. 유동성 공급자가 t_3에서는 ETF 증권의 시장 가격을 다시 본질 가치에 근접시키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지만, t_2에서는 차익을 얻을 수 없다. ④ t_4에서 t_5로 가는 과정에서는 괴리율이 양수이므로, 유동성 공급자는 '시장에서 기초 자산 바스켓을 매수하여 자산 운용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당 ETF 증권을 새로 발행받'는다. 이렇게 '확보한 ETF 증권을 시장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ETF 증권을 시장 가격으로 매도해야 한다. ⑤ 괴리율의 절댓값은 t_5가 t_1보다 크다. '괴리율의 절댓값이 크다는 것은 ETF 증권이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보다 현저히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자가 ETF 증권을 매수·매도할 때 본질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할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17. [출제 의도] 단어의 의미 파악

ⓐ의 '맺다'는 '관계나 인연 따위를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로 쓰였고, ⓑ의 '삼다'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의 의미로 쓰였다.

② ⓐ의 '맺다'는 '열매나 꽃망울 따위가 생겨나거나 그것을 이루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의 '맺다'는 '하던 일을 끝내다.'의 의미로 쓰였고, ⓑ의 '삼다'는 '무엇을 무엇으로 가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의 '맺다'는 '끄나풀, 실, 노끈 따위를 얽어 매듭을 만들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의 '삼다'는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으로 만들다.'의 의미로 쓰였다.

**** 고전 소설 ****

□ 출전 : 작자 미상, 「화산중봉기」

18.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향임을 기다리던 김 처사와 그의 부인은 '까치가 창밖에 와 세 번 짖기에', '길흉을 알지 못하여 민망히 여겼'다고 했으므로 까치가 짖고 간 일을 길조로 여겨 향임을 반갑게 맞이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통판의 부인이 '시비를 시켜 한 번 보고 완전히 정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히고 추월을 불러 '공자를 보고 오라'라고 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저와 함께 온 여인은 과연 여승이 아니오라 김 처사 댁 시비 향임이라.'라는 춘파의 말과 '일의 형세가 그러할지라, 무슨 죄를 내리겠는가?'라는 이 통판 부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관아에서 '부사의 처결을 얻'은 김 처사가 '부인과 선옥으로 ~ 뜻을 고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너희 삼부자는 ~ 들게 하라.'라는 부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 [출제 의도] 작품의 맥락 이해

㉠의 '가문이 장차 끊기게 되옵기로'를 통해 드러난 가문에 대한 김 처사의 염려에 대해 ㉡의 '저 선옥을 다시 장가들게 하여 집안의 법도를 안정시키'라는 부사의 판결에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① ㉠에서 농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김 처사의 의중은 확인할 수 있지만 ㉡에서 그 불신이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② ㉠의 '불초자식이 홀연히 부모를 버리고 간 곳 없더니'를 통해 선옥이 가출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③ ㉠의 '며느리만이 홀로 부군이 아니라'를 통해 선옥의 정체가 의심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 '진짜 선옥을 보기 전에는 귀신도 결단하지 못할지라'를 통해 부사는 선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부모와 친척, 노복이며 이웃이 모두 보고 반겨하오나 오직 며느리만이 홀로 부군이 아니라 하여'를 통해 드러난 김 처사와 농옥의 입장 차이는 ㉡의 '진짜 선옥을 ~ 선옥인가 하오니'라는 부사의 말을 통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출제 의도] 대화의 특징 파악

[A]에서 이 통판의 '내 비록 얼굴을 본 적이 없으나'라는 말을 통해 이 통판과 김 처사의 친분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통판은 부인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농옥은 부사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은택을 입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농옥이 부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이 통판은 '청운의 뜻이 없이 ~ 지상의 신선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김 처사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② [B]에서 농옥은 자신이 먹고 자는 것과 행동이 평상시와 같다며, 자신의 말을 '병자의 말'이라고 여기는 부사의 의견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③ [A]에서 이 통판은 '시비를 보내어 자세히 탐지하라'라고 말하며 부인에게 선옥에 대해 알아보라고 명하고 있다. [B]에서 농옥은 '신의 정절을 밝히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사에게 부탁하고 있다. ④ [A]에서 이 통판은 '호랑이는 개의 새끼를 아니 낳는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선옥이 '반드시 충효를 모두 갖추었'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B]에서 농옥은 '하늘'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언급하며 집으로 돌아온 선옥이 '분명 부군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21.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그 부모는 어려서부터 ~ 병자의 말이로다.'를 통해 부사는 선옥이 진짜가 아니라고 홀로 주장하는 농옥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 농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후 판결에서 농옥의 입장을 고려하여 선옥의 진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으므로 부사가 농옥을 병자라 치부하는 모습을 농옥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려 시련을 겪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저와 함께 ~ 잠깐 기망하였사오니'라는 춘파의 말을 통해 김 처사 댁 시비 향임이 '소저의 화용'을 자세히 보기 위해 여승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춘파와 함께 이 통판 댁에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소저는 곧 천상 선녀라 ~ 말씀하옵기 어렵나이다.'라는 향임의 말과 '온화한 용모와 ~ 못할 정도였다'라는 추월의 생각은 각각 농옥과 선옥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주변 인물의 평가에 해당한다. ③ 김 처사와 그의 부인은 형옥이 데려온 남자가 아들 선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옥은 형옥이 데려온 남자가 자신의 부군이 아니라며 김 처사 부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대립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진가쟁주' 화소에 해당한다. ⑤ 농옥은 '시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부사의 말에도 '외모에 나타난 얼굴'이 다르다며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 양귀자, 「한 마리의 나그네 쥐」

22.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A]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적 갈등이 과거 회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슴속에 우물이 있다면 ~ 기분이었다.'에서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상한 놈이군.'에서 인용 부호 없이 쥐에 대한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한 마리 쥐의 구부정한 등허리 위로 청색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와 '그의 구부정한 등허리에도 어둠이 한 켜 내려앉았다.'를 통해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쥐'와 사내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깊은 터널처럼 뚫려 있는 숲이었다.'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박 씨)는 '그 사람이 ~ 편이라는 거여.'라고 말하며 사내에 대한 대략적인 신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는 ⓑ(주 씨)와 ⓓ(엄 씨)에게 '주 씨 자네는 ~ 본 적이 있능가?'와 '엄 씨는?'이라고 말하며 사내를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있다.

① '우짜다가 그 ~ 있다 하던데.'를 통해 ⓑ 역시 소문에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엉뚱한 상상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 아니라 ⓓ이다. ③ '그 사람이 ~ 편이라는 거여'에서 ⓒ는 전에 들은 내용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가 확실한 근거를 들어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는 사내의 가족에게, ⓓ는 사내에게 주목해 대화를 이어 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 전반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24. [출제 의도] 작품의 맥락 이해

㉠(소식)의 부재는 ㉡(이야기) 속 인물인 사내에 대해 '아즉도 산에 ~ 죽은 건지'와 같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① ㉠을 기다리는 인물은 사내의 부인으로, ㉡에서 '마누라들캉 새끼들은 우째 되었답니까'에서 언급되고 있다. ③ '한동안은 남편에게 소식이 올까 기두리고 또 찾아도 봄시로'를 통해 ㉠을 알기 위한 인물의 노력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노력이 ㉡을 통해 다수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에 참여한 인물 중 누구도 ㉠을 전하고 있지 않으므로, ㉡에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을 통해 ㉠을 알 수 없는 상황이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을 전하는 인물들은 사내에 대한 소문에 흥미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뿐, 모든 인물들이 ㉠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25.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사내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딘가 잠자리를 찾아 숲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문갑 위에 놓아두고 나온 그의 손목시계'를 떠올리며 지금 '몇 시나 되었'는지 '애써 시간을 짐작해 보'고 있다. 그러나 결국 사내는 '숲 가운데 홀로 남아' 내면적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울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을 짐작해 보는 사내의 모습에서 관계의 부재로 인한 내면적 고독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갈래 복합 ****

□ 출전 : (가) 김약련, 「과폐탄(科弊歎)」
(나) 윤기, 「한거필담(閒居筆談)」

26.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는 '친척 사돈 모르거든 붕우장유 어이

알리'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리다툼을 하는 선비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식자의 눈으로 ~ 크게 탄식하지 않겠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올바른 학문의 자세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① (가)에서는 선비와 부형 간의 대화가 나오지만, 이 대화는 과거 급제의 가능성과 관련된 천지축의 제출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이를 통해 과거 제도의 폐단을 밝힌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서는 공자와 안자의 행적을 나열하여 글쓴이가 생각하는 올바른 학문의 자세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성현의 행적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우우우'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문이 열리자 과장 안으로 몰려가는 선비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선비가 과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과거를 응시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시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27.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에는 과장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응시자들이 친구도, 나이 많은 사람도 따지지 않고 막말을 하며 다투다 옷이 찢어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① ⓐ에는 아침부터 문을 열라 고함치는 과거 응시자들의 성화에 일찍 과장의 문을 여는 금란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에는 과제를 먼저 보기 위해 몰려들어 과제가 내걸린 현판 주변에 둘러서서 과제를 보는 응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과제를 먼저 보고 답지를 빨리 작성하려는 응시자들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④ ⓓ에는 학식이 많음에도 오히려 자신보다 학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배우려 하는 안자가 지닌 학문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드러나 있다. ⑤ ⓔ에서 '이러한 무리들'은 '서사를 약간 섭렵하면 ~ 과장을 일삼아 명성을 훔치는' 사람들로, 글쓴이는 그릇된 자세로 학문에 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28.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귀향)에서 집안사람들이 대방주를 빚는 이유는 천지축을 바쳤다는 선비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지, 선비가 바닥장이 되게 답지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다.

① ㉠에서 선비가 집안사람들이 굶어도 선접량을 모으는 이유는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비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에 병이 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 ㉠에서 선비가 아침 일찍부터 사립문 가까이에 서 있는 이유는 ㉡에서 과장이 열리면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 빠르게 과장 안으로 달려가기 위해서이다. ③ ㉡에서 선비가 글제를 보고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에서 책의 내용은 보지 않고 과거 문제의 작성 방법만을 연습했기 때문이다. ④ ㉢에서 부형이 집에 돌아온 선비에게 천지축을 바쳤냐고 묻는 이유는 ㉡에서 선비가 답지를 일찍 바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29.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

공자와 안자는 성현임에도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묻고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로 학문에 임했다. 따라서 자신이 많이 알고 있어도 남에게 배우기를 꺼리지 않는 것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올바른 학문의 자세이다.

① 글쓴이는 공자가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성인이면서도 남에게 묻고 배우려 했던 태도가 훌륭하다고 한 것이지, 예와 음악을 배웠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③ 글쓴이는 어려운 글자를 기억해 내면 스스로를 남보다 뛰어난 견해를 지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지, 어려운 글자를 기억해 내는 사람을 뛰어난 견해를 지닌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글쓴이는 기이한 문장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빼어난 학자라 여기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지, 빼어난 학자로 인정받기 위해 기이한 문장을 발견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⑤ 글쓴이는 우연히 찾은 궁벽한 시구절로 남들의 고루함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구를 찾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30. [출제 의도] 작품의 창의적, 주체적 수용

<보기>에서는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이전에 진실이라 믿었던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보기>를 참고했을 때 [A]의 '납어'와 '점어'는 나무에 오를 수 있는 물고기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할 수 없다'라는 진술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①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이려면 '모든 물고기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라는 명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② '납어'와 '점어'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은 물고기가 나무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연목구어'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의 비유로 사용했을 것이다. ③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인 '납어'와 '점어'가 발견된 후라면 '모든 물고기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라는 명제는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⑤ '납어'와 '점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므로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진술에는 오류가 없다.

31.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화서와 빙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이하고 사소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쥐는 불에서 ~ 기를 수 없다'는 상리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이야기이다. 따라서 사소한 것을 아는 사람이 상리의 이야기를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앎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잘못된 학문의 자세이다.

① '약한 선비 엎어'진 것을 보고도 이를 '짓밟고 가는' 것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으로, 이것은 학문을 통해 올바른 삶의 도리를 배운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② '경제책 아득하니 설 폐구폐 무엇인고'라며 과제를 보고도 경제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현재 상황의 폐단과 대책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경서와 역대사를 모르고 의의와 시부를 짓는 잘못된 태도로 학문을 했기 때문이다. ④ '무리한 중에 간혹 있는' 것은 사소한 것이고, '상리'는 보편적인 이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것을 근거로 상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는 지엽적 태도를 지닌 사람에 해당한다. ⑤ '역대사 못 알아도 시부를 능히 짓'는 것은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급제만을 목표로 학문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서사를 약간 섭렵하'고 '잘난 체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현학적 태도를 지닌 사람의 모습이다.

**** 현대시 ****

□ 출전 : (가) 박목월, 「회귀심」
(나) 김명인, 「분수」

32.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가)는 '기다린다', '돌아온다', '가족이 있다'에서, (나)는 '출렁거린다', '바라본다', '널브러진다', '보내고 있다'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①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움직임을 자연물에 빗대고 있지 않다. ③ (가)의 '떨어져 가는', '가라앉았다', '떨어지는'과 (나)의 '허물어져', '주저앉아'는 하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시어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어가 계절적 배경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물일까', '시간일까', '꿈결일까'에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서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의 '이 갸륵하고 측은한 회귀심', '하룻밤을 지내는 측은한 화목들', (나)의 '저 분수대의 ~ 바라본다, 푼수!'는 명사로 종결한 시행이지만, 이러한 시행이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3. [출제 의도] 시적 상황의 파악

(나)에서 '나'는 '벤치 위에' '널브러진' 존재의 '풋잠'에 '오색 꿈결'이 섞이길 바라고 있을 뿐, '벤치 위에' '널브러'져 '풋잠'을 자는 삶 자체를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가)에서 '나'는 '서로 등을 붙이고 / 하룻밤을 지내는' '화목들'을 '측은'하게 여긴다. 이를 통해 화자가 가족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나)에서 분수가 '허공에 / 사직을 내다' 건다는 것은 분수대에서 물이 분출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이를 통해 분수가 공중으로 물줄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에서 '무지개 생'이 '물이 꿈꾸는 또 다른' 물이라는 것은 물줄기 사이로 나타난 무지개가 물이 꿈꾸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꿈을 꾸는 주체가 분수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34. [출제 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나)에서 '나'가 '평일 오후 내내' '분수대의 도로(아무런 보람이 없는 수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자신을 '푼수'라고 부르는 것은 분수의 '도로'와 같이 보람 없이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성찰한 것이다. 따라서 분수의 '도로'를 보는 자신을 '푼수'라고 부르는 것은 화자가 분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① (가)에서 '나'가 '밤이 되면' '원효로행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것과, (나)에서 분수가 물줄기를 뿜었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일은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나)의 분수가 '주렴을 펼'쳤다가 '끝없이 거둬들이는' 것은 화자가 발견한 반복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나'는 '어디서나' '가족이 있'는 '종점 가까이'로 향하며, 이 마음을 '갸륵하고 측은한 회귀심'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회귀심'에 주목해 가장의 역할을 다하는 자신이 갸륵하고 측은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나'는 집으로 향하는 '어둑한 버스 안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받아 주시는 / 끝없는 부드러운 그 손'의 존재를 느끼며 '마음이 가라앉'는다. 따라서 (가)에서 화자가 '어둑한 버스 안에서' '끝없는 부드러운 그 손'을 느끼는 것을 통해 고단한 하루를 마친 자신을 포용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나'는 '척추 허물어뜨린 분수'의 형상을 보며 '쳇바퀴 살림'으로 인한 지겨움을 떠올린다. 따라서 (나)에서 화자가 '쳇바퀴 살림'으로 인해 '척추 허물어뜨린 분수'에 주목해 반복을 지속하는 것이 지겨운 삶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⑤	36	①	37	②	38	⑤	39	①
40	③	41	④	42	⑤	43	④	44	③
45	②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 의도] 음운의 변동 양상 파악

'가지-'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가져'가 되는 것은 모음 결합의 제약 때문에 어간 끝 모음 'ㅣ'가 반모음 'j'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구개음 'ㅈ'과 반모음 'j'는 조음 위치가 비슷하여 결합할 수 없다는 음운 결합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해, 반모음 'j'가 탈락하게 되고 [가저]로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가저]로 발음하는 것은 모음과 모음 사이의 결합 제약 때문이 아니라, 자음인 경구개음과 반모음 'j'가 결합할 수 없다는 제약 때문이다.

①'가-'와 어미 '-아'가 결합하면 동일 모음 '-아'가 연달아 이어지게 되고, 이 경우 음운 결합 제약으로 인해 그중 하나가 탈락하게 된다. ②'아니오'를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은 단모음이 연달아 이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어간 끝 모음 'ㅣ'와 어미 '-오' 사이에 반모음 'j'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③'피어'를 [피여]로 발음하는 것은 단모음이 연달아 이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반모음 'j'가 첨가되기 때문이다. ④'벼'는 장음 [벼:]로 발음되는데, 이는 용언 어간이 1음절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와 달리 '살펴[살펴]'에는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36. [출제 의도]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의 '외와'는 '외오-'에 어미 '-아'가 결합할 때 어간 끝 모음 'ㅗ'가 반모음 'w'로 바뀌는 w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도 어간 끝 모음 'ㅗ, ㅜ'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w 반모음화가 일어난다.

②ⓑ의 'ᄀᆞᄅᆞ쵸미'는 'ᄀᆞᄅᆞ치-'에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끝 모음 'ㅣ'가 반모음 'j'으로 바뀌는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만 반모음화가 일어난다. ③, ④ ⓒ의 '배'는 의존 명사 '바'에 조사 'ㅣ'가 결합할 때 뒤에 오는 조사 'ㅣ'가 반모음 'j'로 바뀌어 하향 이중 모음 'ㅐ'를 형성한 것이다.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만 반모음화가 일어난다. 현대 국어에서는 'ㅐ'가 단모음이며, 단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반모음화가 일어난다. ⑤ⓓ의 '고텨'는 '고티-'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j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이고, 현대 국어의 '고쳐'의 경우도 '고치-'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j 반모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37. [출제 의도] 지시 표현의 특징 파악

㉡의 '거기'와 ㉢의 '여기'는 같은 곳을 가리키지만, ㉡은 화자인 설아로부터 멀고 청자인 준호로부터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지시하는 장소에 화자가 위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①㉠의 '여기'는 2번 조명만 점등이 안 되고 있는 곳을 가리키며, ㉢의 '여기'는 준호가 예비 조명이 없음을 확인한 곳이다. ③㉣의 '그건'은 앞의 발화에서 언급된 예비 조명을 대신하는 표현이며, ㉡의 '거기'는 준호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④㉣의 '그건'은 대화 상황에 부재하는 예비 조명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의 '이것들'은 대화 상황에 실재하는 1번과 3번 조명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⑤ⓗ의 '저번'은 과거의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의 '이번'은 축제가 진행되는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38. [출제 의도] 품사의 특성 파악

㉣의 '못하다'는 보조 동사이고, 본용언 '잇다'는 동사이다. ㉤의 '못하다'는 보조 형용사이고, 본용언 '옳다'는 형용사이다. 따라서 ㉣과 ㉤의 보조 용언 '못하다'는 품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용언의 품사에 연동되어 품사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①㉠의 '못하다'는 본용언이고, ㉣의 '못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따라서 '못하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의 '않다'는 '음식 솜씨가 예전보다 못하지 않는다*'처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보조 형용사이다. 반면 ㉠의 '않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보조 동사이다. ③㉡의 '않다'는 '앞말이 뜻하는 상태를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본동사의 뜻을 보충해 주는 보조 용언이다. ㉢의 '않다'는 '어떤 행동을 안 하다'의 의미로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는 본용언이다. ④㉢의 '않다'는 '그는 사람들에게 말을 않고 있다'처럼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반면 ㉡의 '못하다'는 '-고 있다'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39. [출제 의도] 문장의 구조 파악

관형사절 '다리가 아프신'의 주체는 '할아버지'이며 할아버지의 신체를 높이는 간접 높임으로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여쭈어보다'는 '물어보다'의 높임말로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여쭈어보다'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②'찾아가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고향에서 올라오신'의 주체는 '부모님'이고,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④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친척들'을 높이고 있지 않다. ⑤'위로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40. [출제 의도] 매체 유형의 특성 파악

(가)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은 진행자의 발화가 아닌, 전문가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두 번째 이미지에서, 전문가가 제철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푸드 마일리지를 언급할 때 활용한 도표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②전문가의 첫 번째 발화에서 '제철코어는 ~ 말합니다.'라고 하며 중심 화제와 관련된 용어인 제철코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④두 번째 이미지에서, 전문가의 발화 중 제철 농산물을 먹으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적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첫 번째 이미지의 중앙에 방송 소재와 관련 있는 수박과 옥수수 이미지를, 방송에서 다룰 내용인 제철코어의 의미와 함께 보여 주고 있다.

41. [출제 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태도 파악

'여울'과 '마루'는 각각 '제철 음식 조리법'에 관한 정보와, '겨울철 지역 축제'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여울'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으나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②'늘품'은 방송 소재와 관련된 기사를 읽은 경험을 언급하고 있으나 방송에서 다룬 정보가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③'마루'는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으나 방송 내용에 관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⑤'늘품'은 방송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보완해야 할 내용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다.

42. [출제 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파악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시된 지도를 통해 여름철 지역 축제의 위치를 보여 주고 있으나, 문구를 통해서 여름철 축제 행사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

①(가)에서 언급된 계절의 지속 시간이 달라졌다는 정보를, (나)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계절 길이 변화에 따라 글자의 크기와 사계절의 막대 길이를 달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②(가)에서 언급된 제철 음식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정보를, (나)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철 음식 검색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③(가)에서 언급된 다음 달 제철 달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기 위해,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농식품 정보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④(가)에서 언급된 농식품 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 제철 농산물에 관한 정보를,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7월의 제철 농산물과 영양 정보를 포함한 달력으로 보여 주고 있다.

43. [출제 의도]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이해

ⓓ에 사용된 '에'는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가)에서 진행자는 제철 챌린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철 챌린지의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가)에서 진행자는 '도'를 사용하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역시 제철을 챙기는 문화를 즐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의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가)에서 진행자는 '만큼'을 사용하여 제철의 희소성이 높아진 것이 제철 음식을 선호하는 현상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의 '어떤'은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관형사이다. (가)의 진행자는 '어떤'을 사용하여 제철 음식 이외에 제철을 즐기는 다른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⑤ⓔ의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가)에서 진행자는 '부터'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제철 챌린지에 참여하려는 시점이 이번 여름임을 드러내고 있다.

44. [출제 의도] 매체 활용 방식 파악

(가)에서 '수호'는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회 임원들에게 보내기 위해 녹화를 하고 있을 뿐, 회의 참여자들을 위해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①'수연'은 귓속말 기능을 활용하여 '지혜'에게 회의 시간을 착각했다며 회의에 늦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②'민우'는 마이크 음소거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있다. ④'지혜'는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인공 지능이 추천한 마스코트 공모전 홍보 전략을 회의 참여자에게 공유하고 있다. ⑤회의 참여자들은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선생님 평가의 심사 반영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고 있다.

45. [출제 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파악

공정성에 관한 '지혜'의 발화를 반영하여 심사 방법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나)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 발화를 바탕으로 평가 주체의 심사 반영 비율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①참가 대상에 관한 '수연'의 발화를 반영하여, (나)에서 참가 대상을 우리 학교 학생 전체로 제시했다. ③보상 제시에 관한 '예리'와 '수연'의 대화를 반영하여 (나)에서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④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수호'의 발화를 반영하여 (나)에서 인공 지능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⑤ 아이디어 생성에 관한 '민우'와 '예리'의 대화를 반영하여 (나)에서 작년 마스코트의 이미지와 함께 '사이 좋은 ○○고 친구들'이라는 마스코트의 의미를 제시했다.